

# 한국인의 개인색채 유형에 따른 패션색채 기호의 분석

조 은 영\* · 유 태 순\*\*

대구가톨릭대학교 패션산업학과 강사\* · 대구가톨릭대학교 패션산업학과 교수\*\*

## An Analysis of Fashion Color Preferences According to Koreans' Personal Color Types

Eun-Young Jo\* · Tai-Soon Yoo\*\*

Instructor, Dept of Fashion Industry,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Professor, Dept of Fashion Industry, Catholic University of Daegu\*\*

(투고일: 2008. 5. 28, 심사(수정)일: 2008. 12. 2, 게재확정일: 2008. 12. 15)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ccording to Four Seasonal Color system, the researcher analyzed the Korean Personal color and investigated abstract color preferences and the fashion color preferences to support the Korean color preferences and the color recognition trend. The study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following procedures: 144 women from 20s to 50s were selected as participants of the survey and the interview. The fashion color preferences and the personal body color was analyzed by the questionnaire and the interview. The data were analyzed by SPSS 12.0 program. As a way of analysis, crosstabs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t-test, ANOVA and regression analysis were used.

As a results, in the Personal color type of Korean women, it is distributed in the order of spring, summer, winter and autumn. In addition, Light image is highly distributed in the Personal color image. People preferred summer color group in the general color preference and the cosmetic color preference and they preferred winter color type in the clothes color and the suitable color for themselves. In the color recognition, as the color interest increases, the coincidence between suitable color and favorite color increased. The recognition of suitable color, the consideration of color in purchasing and the interest of outward appearances were highly showed.

Key words: color preferences(색채기호), fashion color preferences(패션색채 기호), personal color(개인색채), four seasonal color(사계절 색채)

## I. 서론

오늘날의 시장 환경은 제품의 기능에 주력했던 과거의 대량 생산체제에서 소비자 개인의 기호와 욕구를 충족시키는 감성 중심의 환경으로 변화하고 있다. 디자인 전반에 걸쳐 소비자의 감성에 맞는 제품들이 선호되고 있는 가운데, 색채는 성공적인 감성 마케팅을 위한 핵심 요소로 부상하고 있다. 색채학자 Birren에 따르면 인간은 색채에 대한 특정한 기호를 가지고 태어나며, 색채에 대해 느끼는 것은 일생 동안 지속될 것이라 하였다.<sup>1)</sup> 인간이 어떠한 색을 선호하거나 혐오하는 것은 역사적, 사회·문화적, 인구학적 측면에서 측정되어지며, 개인의 심리적 측면에서도 이루어지는데, 심리적 요인으로는 욕구, 정서, 감정, 성격, 태도와 타고난 조건, 경험, 교육 등이 속한다.<sup>2)</sup> 이러한 색채기호에 대한 조사는 소비자의 감성과 디자인에 대한 요구사항을 파악 하는데 좋은 방법이 되며, 성별, 연령, 인종,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양상의 색채기호는 동일 인에 있어서도 일반적인 기호색과 특정상품을 대상으로 한 기호색이 일치하지는 않는다.<sup>3)</sup>

최근 들어 색채는 글로벌 마케팅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색채의 의미나 조합이 문화권에 따라 다르다면 상품의 판매 회사는 지역이나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색채 마케팅 전략을 추구하여 보다 큰 이윤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한다.<sup>4)</sup> 세계 패션 시장에서도 지역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민족이나 국가의 색채기호에 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Roberts<sup>5)</sup>는 지역적 기호색채의 차이는 색채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착용자의 인종 유형에 따른 피부색을 고려하여 상품의 색채를 선택할 것을 제시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지역별, 국가별 선호색의 차이는 사회 문화적 또는 역사적 요인에서 기인하여, 제품의 구매 성향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즉 같은 색이라 할지라도 지리적, 문화적 배경의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의미를 지닐 수 있으며 선호되는 경향도 다르게 나타나므로, 국가나 민족, 지역의 차별화된 색채기호의 파악은 다양한 시장의 상황에서 각기 다른 색채로 대응, 접근해야 하는 중요한 이유가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리적 환경이나 인종, 민족에 따른 색채기호의 양상을 논하는 색채 기호의 민족설 가운데, 한 개인의 신체 색채가 그 사람의 색채기호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나아가 개인들의 집단인 민족이나 국가를 대표하는 색채기호가 된다는 색채기호의 피부색설<sup>6)</sup>을 확인 해 보려한다. 이를 위해 한국인의 신체 색채를 개인색채 이론을 바탕으로 유형화한 다음 패션 색채에 대한 기호를 조사함으로써, 한국인에게 우세하게 나타나는 개인색채 유형과 패션색채 기호는 어떠하며 과연 이 개인색채 유형이 패션 색채 기호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려 한다. 기존의 색채기호 연구에서는 색상이나 톤의 차원에서 선호하는 몇 개의 색을 선택하라고 했다 면, 본 연구에서는 색상과 톤, 배색 등을 고려한 네 개의 색채유형에 따라 개인색채 진단도구와 패션색채 기호의 측정 도구를 제작하여 한국인의 개인색채의 유형과 패션색채 기호의 관계 및 개인색채 유형과 인구학적 특성에 따른 색채 인식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이를 통해 기업에게는 제품개발이나 판촉 등의 차별화된 패션색채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 자료가 되고, 소비자에게는 개인색채에 대한 인식의 확대와 함께 끊임없이 변화하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자신의 이미지를 만들고 개선하는 실용적인 색채 활용 자료로 이용되고자 한다.

## II. 이론적 배경

### 1. 색채기호의 피부색설과 패션색채 기호

Goethe는 1810년 「색채론(Zur Farbenlehre)」의 생리적 색채론에서 색채기호는 연령, 민족성, 심리·생리학, 성별, 머리카락색, 교양과 관계가 있다는 태생적, 환경적 요인과의 연관성을 제시 하였고, 이는 이후 색채기호 연구의 토대가 되었다. 또한 의복의 색채 기호에 관해서도 인간의 성격, 안색, 연령, 신분 등과 연관이 있다고 서술하고 있다.<sup>7)</sup> 최근 들어 색채기호의 연구는 지리적, 문화적인 환경 요인, 태생적 요인 등의 차이를 강조하는 지역적, 민족적인 측면에서의 연구가 활발한 가운데, 민족적 특성에서 색채기호의 경향을 찾으려는 색채기호의 민족설이 새로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색채 기호의 민족질 가운데 피부색질은 생득적인 경향의 인종적·민족적 피부색에 따라 색채기호가 이복된다는 이론으로 주목받고 있는데, Jaensch에 따르면 민족적 색채기호의 유형은 크게 난색계와 한색계로 나뉘고 난색계는 brunet유형의 라틴계로 대표되는 따뜻한 색채 특성을 가진 민족들의 선호 색이자 어울리는 색이며, 한색계는 차가운 색의 특성을 가진 blond유형의 북유럽 민족들의 선호 색이면서 그들의 신체색상에 잘 어울리는 색이라 하였다.<sup>8)</sup>

민족적 색채기호에 대한 연구에서 Saito<sup>9)</sup>, 차정민과 노구찌<sup>10)</sup> 등은 일본과 한국 소비자의 색채기호를 비교하였고, 최미영<sup>11)</sup>은 BRICs 지역의 소비자, 김문영<sup>12)</sup>은 한국과 이태리 패션전문가의 색채기호를 비교·연구하였다. 이러한 민족적 차이를 밝히는 색채기호 연구들은 기존의 일반적인 색상(hue) 중심의 조사에서 명도와 채도가 혼합된 톤(ton)이나 배색에 대한 인식이나 선호의 차이를 비교하는 연구로 세분화되고 있다.

색채기호는 구체적인 대상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특히 의복을 비롯한 패션상품에 사용된 패션색채는 일반적인 추상적 색채기호와와는 구별되는 점이 많다. 패션색채 기호의 조사는 성별이나 연령 외에도 계절, 의복의 품목, 교양 정도, 소득, 유행 몰입도, 신체치수 및 신체만족도, 의복 이미지 등의 다양한 영향 변인에 따라 측정된다. 이 밖에도 이민아<sup>13)</sup>, 김구자<sup>14)</sup> 등은 착용자의 피부색을 영향 변인으로 두었으며, 박정혜<sup>15)</sup>, 서란숙<sup>16)</sup> 등은 의복 뿐만 아니라 의복과 연관된 화장품의 선호색 조사 등 패션색채 기호에 대한 연구의 영역이 점차 다양화되고 있다.

## 2. 개인색채와 사계절 색채이론

최근의 색채에 대한 연구는 패션색채 컨설턴트들에 의해 그 어느 때 보다 활성화 되고 있는데, 특히 퍼스널컬러 시스템(Personal Color System)으로 널리 알려져 있는 개인색채 이론은 사람마다 갖고 있는 신체색채에는 고유한 바탕 색이 있다는 것에서 출발한 이론으로, 개인색채는 개인이 타고난 신체색채를 말하며 피부, 눈동자, 머리카락의 색채를 바탕으로 구성

된다.<sup>17)</sup> 이러한 개인색채의 분석은 개인의 바탕색을 찾아내어 그 색에 가장 잘 어울리는 패션색채를 제안함으로써 개인의 이미지를 보다 더 조화롭고 아름답게 연출할 수 있도록 한다.

1920년에 배색의 주관적 색조를 발견한 Ittan의 이론은 개인색채 분류의 시작점이 되었고, 사람의 피부색이 yellow base와 blue base의 두 가지 바탕색을 지니고 있다는 Dorr<sup>18)</sup>의 이론은 개인 색채 체계의 근본원리로 알려져 있다. 60년대에 들어 Cayghill은 사계절 색채이론에 따라 개인의 색채를 분류하는 방법을 개발하였는데, 사계절 색채 이론은 Goethe의 '자연 색채론'에서 영향을 받은 이론으로 Goethe는 어둠의 배경을 이루는 기본색이 yellow와 blue이며, 계절 변화에 따른 자연 색채의 특징은 자연의 한 부분인 인간의 신체에도 존재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sup>19)</sup> 이는 후대의 다양한 색채계 수립에 영향을 주었고 사계절 색채이론도 그 가운데 하나이다.

계절에 따른 색채의 분류는 사람이 색채를 보고 느끼는 심리적인 온도감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는데, 즉 사계절 색채이론은 모든 색을 한색(cool color)과 난색(warm color)으로 구분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색상환에서의 색상의 온도감은 두 가지 관점, 즉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심리적 온도(psychological temperature)와 구분하기는 어렵지만 심리적인 감성에 따라 yellow와 red도 차가운 느낌을 지닐 수 있고, blue도 따뜻한 느낌을 가질 수 있다는 상대적 온도(relative temperature)로 설명될 수 있다.<sup>20)</sup> 이에 따라 거의 모든 계열의 색은 바탕색에 따라서 찬색과 따뜻한 색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계절 색채는 이와 같은 상대적인 색 분류에 톤의 개념이 합쳐지면서 통합적인 한난감을 나타낸다. 따라서 사계절 색채의 구분은 색채조화의 원리에 따라 같은 계열의 동일한 바탕색을 가지고 있는 색상 계열은 모두 조화를 이룬다는 이론이다. 이 사계절 색채 이론을 바탕으로 Radeloff<sup>21)</sup>는 미국 여대생들의 의복색채 선호도를 조사하였으며, 신향선<sup>22)</sup>, 윤희<sup>23)</sup> 등도 선호색채의 조사나 개인색채 분류에 관해 연구에 사계절 색채 이론을 활용하였다.

사계절 색채이론에 따른 개인색채 분석체계는

Jackson에 의해 대중화되었고, 이를 보완하여 Fujii<sup>24)</sup>는 보다 다양한 인종적인 피부색을 고려하였으며, Mathis와 Connor<sup>25)</sup>는 신체색상의 바탕색을 따뜻한 형, 차가운 형, 복합형으로 나누어 구분하였다. 일본에서는 Matsuura 등에 의해 PCS(Personal Color System)의 체계화를 이루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김영인 외<sup>26)</sup>가 기존의 'Personal Color System'을 '개인색채이미지 유형'이라 명명하고, 우리 실정을 고려한 PCDS(Personal Color Design System)을 개발하여 색조 화장품의 색채계획 등에 제안하고 있다.

초기의 개인색채에 대한 연구는 얼굴의 피부색을 중심으로 측색계로 측정 한 후 평균값을 내는 것이 대부분이었는데, 이와 같은 추상적인 피부색 측정은 실제 활용에 한계를 가져, 이를 보완하기 위한 연구들이 요구되어졌다. 박화순<sup>27)</sup>, 이민아<sup>28)</sup> 등은 피부색을 측색계로 측정 한 다음, 황색계와 핑크색계로 분류하였고, 문원목<sup>29)</sup>, 홍미숙<sup>30)</sup> 등은 다양한 색체계에 따라 진단도구를 개발하고, 측색과 육안진단을 통해 개인색채를 유형화하여 선호색이나 어울리는 색을 분석하는 등 개인색채에 대한 연구는 날이 전문화, 다양화되고 있다.

### Ⅲ. 연구방법

#### 1. 연구문제

한국인의 개인색채를 분류하고 그에 따른 패션색채 기호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 1) 사계절 색채이론을 바탕으로 한국인의 개인색채 유형에 대해 알아본다.
- 2) 개인색채 유형에 따른 패션색채 기호의 차이에 대해 알아본다.
- 3) 개인색채 유형과 인구통계적 요인에 따른 패션색채 인식의 차이에 대해 알아본다.

#### 2. 연구대상

본 연구의 조사대상자는 대구, 경북권과 서울에 거주하는 20대에서 50대의 성인여성들로 전체 연구 대

상자 144명의 연령 분포는 20대가 26.4%, 30대가 28.5%, 40대가 25.0%, 50대가 20.1%로 나타났고, 교육의 정도는 대졸이 45.8%, 고등학교 졸업이 30.6%, 대학원 재학 이상이 10.4%, 대학교 재학이 9.0%, 중학교 졸업 이하가 4.2%로 나타났다. 직업별 분포를 보면 주부가 39.6%, 전문직이 19.4%, 판매 서비스직이 12.5%, 학생이 10.4%, 사무직이 9.7% 등으로 나타났다. 각 연령대의 비율은 일정 수준으로 통제하여 표집 하였고, 거주 지역은 대구권이 대부분이라 지역별 특성은 변인으로 고려하지 않았다.

#### 3. 측정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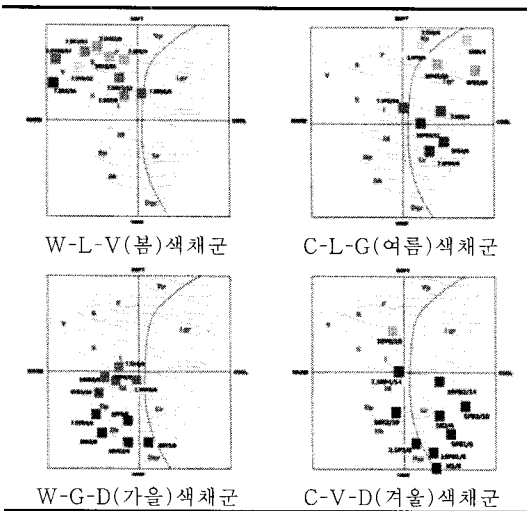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도구는 패션색채 기호 조사를 위한 설문지와 면접조사를 통한 개인색채 분석에 피부색과 머리카락색 진단색지, 진단칩, 개인색채 분석지가 사용되었다.

##### 1) 패션색채 기호 측정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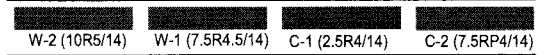
패션색채 기호의 조사를 위한 설문지의 구성은 먼저, 상대적 온도감을 바탕으로 바탕색의 Warm, Cool을 나누고, 명도와 채도가 결합된 톤이 합쳐져 통합적인 온도감을 나타내는 사계절 색채이론에 따른 <표 1>에서의 톤분류 기준과 <그림 1>의 Kobayashi<sup>31)</sup>의 색채 이미지 스케일을 통해 분석하였다. 이에 따라 4개의 계절 색채군, 각 10개의 대표색을 선정하여 컬러 샘플로 제작하고 일반적인 색채기호와 패션색채 기호를 묻는 6문항과 함께 제시 하였다. 또한 Jackson, Fujii, Rabbitt 등의 여러 개인색채 진단 체계들에서 개인의 바탕색을 파악하는 기초 단계에서 주로 이용하는 립스틱 색상에서 red의 기호를 묻는 2문항과 사용하는 파운데이션 색상을 묻는 2개 그룹의 컬러 샘플이 <그림 2, 3>와 같이 제시 되었다. red의 컬러 샘플은 IRI디자인연구소의 Hue&Tone 898 System에서 추출하였는데, vivid 톤의 10R에서 7.5RP사이에서 상대적 온도감에 따라 2개의 warm red와 2개의 cool red를 선정하였다. 사용하는 파운데이션의 색채는 일본색채연구소의 피부색 측정 색지와 국내의 화장품 브랜드의 웹 사이트를 참고하여 핑크 베이지와 옐로

〈표 1〉 색채기호 조사를 위한 컬러 샘플의 선정 기준

바탕색	색채군	분류
Warm	W-L-V(봄) / W-G-D(가을)	light, bright, vivid, strong / soft, grayish, dull, deep, dark
Cool	C-L-G(여름) / C-V-D(겨울)	light, pale, soft, grayish, dull / pale, vivid, deep, dark



〈그림 1〉 색채이미지 스케일을 통해 분류한 색채기호 조사 컬러샘플



〈그림 2〉 red 색상 컬러 샘플



〈그림 3〉 파운데이션 컬러 샘플

천, 국내 여러 컬러연구소들에서 자체 개발한 진단천 (주로 폴리에스테르 소재의 새틴) 들을 조사 한 결과, 색채 체계가 일정하지 않고 진단천의 재질면에서도 표면광택 등에서 차이가 크게 나타나 기존의 진단천 중에서 도구를 선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공업진흥청 설계기준(KSCP-A-1009)으로 국가 표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실용한 국표준섬유색도감의 컬러 스위치 전면의 색과 광택정도를 기준으로 하여 육안검색을 통해 사계절 색채이론에 따라 4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106개 색을 선정한다. 다음 진단천(견 100%, 수자직, 325×114/inch 이상, 가로 45×세로 35cm)을 제작하였다. 얼굴피부의 바탕색 진단을 위해 색상 계열별로 Warm base와 Cool base로 나눈 〈표 3〉의 총 22색을 사용하였고, 개인색채 유형과 색채이미지의 진단을 위해서 〈표 4〉의 4개 유형 각 21개, 총 84개의 진단천이 사용되었다. 또한 일본색채연구소의 피부색지에서 추출한 〈표 5〉의 15개의 피부색 측정색지와 명도차를 둔 흑색과 갈색 계열의 〈표 6〉의 머리카락색 측정색지 6개가 사용되었으며, 모든 측정도구의 색채체계는 먼셀 시스템을 기준으로 하였다.

#### 4. 측정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는 설문지와 면접조사를 병행하여 조사되었는데, 22명의 2, 30대 여성을 대상으로 예비 조사를 거쳐 타당성을 확인하고, 컬러샘플과 진단 문항 등을

베이스의 밝고 어두운 색으로 구성하여 제시되었다. 또한 한명숙<sup>32)</sup>, 이지운<sup>33)</sup>, 이해영<sup>34)</sup> 등의 연구를 참조한 5점 리커드 척도의 패션색채 인식에 대한 7문항, 인구통계적 특성을 묻는 4문항으로 구성하였다.

#### 2) 개인색채 분석도구

개인색채를 진단하기 위한 분석지는 Jackson<sup>35)</sup>의 이론을 바탕으로 Rabbitt<sup>36)</sup>, Fujii<sup>37)</sup>, Masuura<sup>38)</sup>의 연구를 참조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또한 Masuura, 김영인 등의 연구들을 통해 개인색채의 사계절 유형에는 각 계절마다 뚜렷한 2가지 유형의 색채이미지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Masuura의 PCS에 사용된 색채유형을 수정·보완하여 4가지의 색채이미지를 〈표 2〉와 같이 설정하였다.

또한 개인색채 유형을 분석하기 위한 진단천의 개발을 위해 선행 연구들에서 주로 사용되어진 시판중인 독일의 Beauty is life의 폴리에스테르 소재의 새틴 진단천, 일본 색채연구소의 면 니트 소재의 진단

〈표 2〉 개인색채 이미지 분석을 위한 진단천의 톤 분류

Image		Tone	
봄유형 색채이미지	Light	very pale, pale, light	
	Vivid	vivid, bright, strong	
여름유형 색채이미지	Light	very pale, pale, light	
	Grayish	light grayish, grayish, dull	
가을유형 색채이미지	Grayish	light grayish, grayish, dull	
	Dark	deep, dark, dark grayish	
겨울유형 색채이미지	Vivid	vivid, bright, stron	
	Dark	deep, dark, dark grayish	

〈표 3〉 개인색채 바탕색(base color) 진단천(22색)의 면셀값

Warm	Color	Cool
Gold	Metallic	Silver
7.5R 4/14	Red	2.5R 4/14
5R 6.5/11.5	Pink	2.5R 7/7.5
2.5Y 8/10	Yellow	5Y 8.5/12
2.5G 5.5/8	Green	10G 4.5/8
7.5B 5/8	Blue	7.5PB 3.5/11
5PR 3.5/10.5	Purple	2.5P 3.5/13.5
5YR 4/6.5	Brown	5R 2.5/3.5
10YR 6.5/2	Beige	2.5YR 6.5/1
2.5R 5.5/0.5	Gray	5P 4.5/1
5Y 8.5/0.	White	N 1

〈표 4〉 사계절 색채유형에 따른 색채이미지 진단천(84색)의 면셀값

봄유형				여름유형				가을유형				겨울유형			
10	R	4	2.5	10	R	4	2.5	5	R	3	1	2.5	R	4	12
5	YR	6.5	2	5	YR	6.5	2	5	R	3.5	10.5	7.5	R	5	12
7.5	YR	6.5	1	7.5	YR	6.5	1	5	R	2.5	5.5	10	R	4.5	11.5
5	Y	8	1.5	5	Y	8	1.5	7.5	R	5.5	8	2.5	YR	6	7
10	Y	9	1.2	10	Y	9	1.2	7.5	R	4	10.5	10	YR	8	8.5
10	G	7.5	5	10	G	7.5	5	2.5	YR	4	4	10	YR	6.5	3.5
5	BG	4.5	4.5	5	BG	4.5	4.5	5	YR	5	7.5	2.5	Y	8	5.5
7.5	BG	7.5	2	7.5	BG	7.5	2	7.5	YR	7	9.5	2.5	Y	7	3.5
10	B	7.5	6	10	B	7.5	6	7.5	YR	5	4	5	Y	9	5.5
2.5	PB	6	3.5	2.5	PB	6	3.5	2.5	Y	7	2	2.5	GY	8	4
5	PB	4.5	4	5	PB	4.5	4	2.5	Y	7	6	5	GY	7	7.5
7.5	PB	5	2	7.5	PB	5	2	5	Y	3.5	1.5	7.5	GY	6.5	6.5
2.5	P	3	2	2.5	P	3	2	7.5	Y	6.5	3.5	10	GY	5.5	12
5	P	4	4	5	P	4	4	10	Y	6	3	7.5	G	8	4.5
7.5	P	7	2	7.5	P	7	2	2.5	GY	6.5	3.5	10	G	6.5	7
7.5	P	3	2.5	7.5	P	3	2.5	10	G	2.5	2	7.5	B	6.5	3
10	P	7.5	5	10	P	7.5	5	5	BG	7	1	10	B	5.5	8.5
10	P	5.5	6	10	P	5.5	6	5	BG	3.5	4.5	10	P	5.5	8.5
2.5	RP	6	7.5	2.5	RP	6	7.5	7.5	B	5	5.5	7.5	RP	5	12
7.5	RP	7	7	7.5	RP	7	7	7.5	RP	4	6	7.5	RP	3	6.5
10	RP	7.5	5	10	RP	7.5	5	10	RP	2.5	5.5	10	RP	7.5	6.5

〈표 5〉 피부색 측정색지의 면셀값

Under Color	측정색지	면셀값
Cool Blue base	i	0.81YR 7/6
	y-1	7.97YR 7/4
	h	3.45YR 6/8
	p-1	9.88R 8/4
	p-2	2.89YR 6/6
	p-3	4.89YR 5/4
Cool/Warm Blue/Yellow base	pch	5.90YR 8/4
	nt2	6.79YR 6/6
	nt3	8.89YR 5/4
	b-1	1.77YR 4/6
	oc1	7.7YR 8/4
Warm Yellow base	oc2	7.67YR 7/6
	oc3	9YR 5/4
	st2	5.62YR 4/6
	st3	8.64YR 4/8

〈표 6〉 머리카락색 측정색지의 면셀값

머리카락색 측정색지	면셀값
bk1	N1
bk2	N2
gy1	N3
gy2	N4
br1	6.49YR1.1/3.7
br2	4.29YR2.1/6.6

수정·보완한 설문지와 분석지를 본 조사에 이용하였다. 본 조사는 2006년 8월 21일에서 12월 11일에 걸쳐 20대에서 50대의 성인 여성 144명의 조사 결과를 최종 분석에 사용 하였다. 먼저, 1차 설문지로 패션색채 기호를 조사한 다음 2차 면접조사를 실시하였는데, 맑은 날 자연광에서 거울을 통한 육안 검색으로 2명의 조사자(주조사자 1명과 2명의 부조사자를 교대로 투입)가 진단하였다. 무채색(N6)의 가운데로 상반신을 가렸고, 머리카락은 이마와 귀가 드러나게 정리하였다. 피부색과 머리카락색 등을 기준으로 개인색채의 대비 정도를 분석한 후에 김유순 외<sup>39)</sup>의 퍼스널 컬러 진단방법을 참고한 피부색 진단을 위한 가이드라인에 따라 언더 컬러를 진단하고, 긍정적인 효과를 보이는 색채이미지를 진단하여 최종 개인색채 유형을 판정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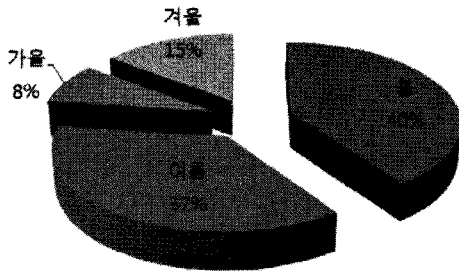
자료의 분석은 SPSS 12. 0을 이용 하여 교차 분석

과 상관분석, t-test와 분산분석, 단순회귀 분석을 실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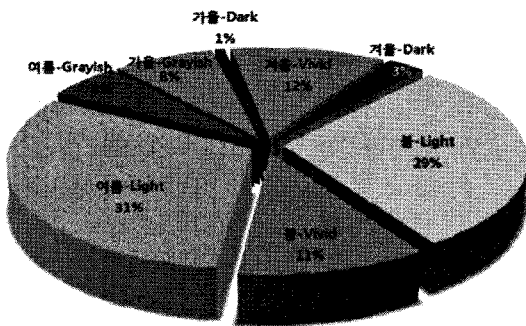
## IV. 연구결과

### 1. 개인색채 유형의 분석 결과

한국여성들의 개인색채를 분류한 결과, 〈그림 4〉와 같이 봄 유형과 여름 유형이 높은 빈도를 보였고 겨울 유형과 가을 유형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 바탕색의 차원에서는 따뜻한 유형과 차가운 유형이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또한 개인색채 이미지를 분석한 결과, 〈그림 5〉에서와 같이 Light 색채이미지가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Vivid, Grayish, Dark의 순으로 나타났다.



〈그림 4〉 한국여성들의 개인색채 유형별 분포



〈그림 5〉 개인색채 유형별 색채이미지

일본인의 신체색을 토대로 한 Masuura<sup>40)</sup>의 PCS에서는 동양인의 개인색채는 봄과 겨울의 유형이 가장 많으며 소수의 여름 유형과 극히 희박한 가을 유형으로 분류되며, 우세하게 나타나는 어울리는 톤 패턴은 Vivid이며 약간의 Dark, Light, 극소수의 Grayish라는 연구와는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한국인의 개인색채가 Cool base에 더 많이 속한다고 한 신헌선<sup>41)</sup>과 문완복<sup>42)</sup> 등 국내의 연구들과는 비슷한 결과를 보여 같은 황색인종이지만 일본인과 한국인의 개인색채 유형에서 나타나는 차이는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표 7〉과 같이 연령대에 따라서는 40대와 50대의 경우 다른 연령대에 비해 Vivid 색채이미지의 분포가 낮았고, 상대적으로 Light 색채이미지의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노화로 인해 얼굴색이 탁해지고 눈썹이나 머리카락색이 연해져, 신체색채의 채도가 낮아 지고 대비가 약해지면서 선명하고 어두운 색이나 강한 색채대비 보다는 밝고 차분한 색채가 보다 더 조화를 이룬 것으로 생각된다.

## 2. 개인색채 유형에 따른 패션색채 기호의 분석

### 1) 개인색채 유형에 따른 일반적인 색채기호

개인색채 유형에 따라 일반적으로 선호색채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교차분석을 실시 한 결과,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봄 유형을 제외한 모든 개인색채 유형들에서 일관된 경향성을 나타내었다.

봄 유형은 C-L-G(여름) 색채군(이하 여름 색채군)을 32.8%로 가장 선호 하였고, 여름 유형은 여름 색채군(35.8%)을, 가을 유형은 여름과 C-V-D(겨울) 색채군(이하 겨울 색채군)에서 각각 33.3%의 선호를 나타내었고 겨울 유형은 겨울 색채군(47.6%)을 가장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밝고 부드러운 색채 특성을 지닌 여름과 봄의 색채군을 선호하였으며, 여름과 겨울의 개인색채 유형들은 같은 색채특성을 가진 색채군을 선호하였고 이를 바탕색의 한난감 차원에서 보면 더욱 뚜렷한 경향을 보였다.

한편 개인색채 유형에 따른 일반적인 혐오색채는 봄의 개인색채 유형은 겨울 색채군을, 여름 유형은 W-G-D(가을)색채군(이하 가을 색채군)을, 가을 유형은 겨울 색채군, 겨울 유형은 W-L-V (봄)색채군(이하 봄 색채군)을 혐오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봄과 가을의 따뜻한 바탕색을 가진 개인색채 유형들은 차가운 색채군에 대해 거부감을 나타내었다. 이 같은 결과는 한국의 색은 밝고 환한 인상을 띠는 안휘준<sup>43)</sup>의 연구나 한국인의 색채감성은 맑은, 밝은, 가벼운, 자연스러운 색상에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는 배한나<sup>44)</sup>의 연구와도 일치하는 부분으로 전통적인 한국인의 민족적 색채기호와도 연관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인의 개인색채 유형과 일반적인 색채기호는 따뜻하고 차가운 계열의 색채군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 거의 비슷한 분포를 보였다. 즉 한국인의 대표적인 개인색채 유형인 봄과 여름의 개인색채 유형이며, 선호/혐오하는 색채기호도 밝고 부드러운 색채 특성을 가진 여름과 봄의 색채군에 대한 선호가 우세하게 나타나 지역적, 민족적인 구성원의 독특한 색채특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



〈표 7〉 연령 및 개인색채 유형에 따른 어울리는 색채이미지

명(%)

연령	개인색채 유형	어울리는 색채이미지				전체	X <sup>2</sup> /p
		Light	Grayish	Vivid	Dark		
20대	봄	9(52.9)	0(.0)	8(47.1)	0(.0)	17(100)	36.568*** (.000)
	여름	12(85.7)	2(14.3)	0(.0)	0(.0)	14(100)	
	가을	0(.0)	2(100)	0(.0)	0(.0)	2(100)	
	겨울	0(.0)	2(100)	0(.0)	0(.0)	2(100)	
	전체	21(55.3)	4(10.5)	13(34.2)	0(.0)	38(100)	
30대	봄	11(68.8)	0(.0)	5(31.3)	0(.0)	16(100)	57.280*** (.000)
	여름	11(91.7)	1(8.3)	0(.0)	0(.0)	12(100)	
	가을	0(.0)	4(100)	0(.0)	0(.0)	4(100)	
	겨울	0(.0)	0(.0)	8(88.9)	1(11.1)	9(100)	
	전체	22(53.7)	5(12.2)	13(31.7)	1(2.4)	41(100)	
40대	봄	11(91.7)	0(.0)	1(8.3)	0(.0)	12(100)	52.465*** (.000)
	여름	13(86.7)	2(13.3)	0(.0)	0(.0)	15(100)	
	가을	0(.0)	4(100)	0(.0)	0(.0)	4(100)	
	겨울	0(.0)	0(.0)	4(80)	1(20)	5(100)	
	전체	24(66.7)	6(16.7)	5(13.9)	1(2.8)	36(100)	
50대	봄	11(84.6)	0(.0)	2(15.4)	0(.0)	13(100)	40.154*** (.000)
	여름	9(75)	3(25)	0(.0)	0(.0)	12(100)	
	가을	0(.0)	1(50)	1(50)	0(.0)	2(100)	
	겨울	0(.0)	0(.0)	0(.0)	2(100)	2(100)	
	전체	20(69)	4(13.8)	3(10.3)	2(6.9)	29(100)	
전체		87(60.4)	19(13.2)	33(22.9)	5(3.5)	144(100.0)	

\*\*\*p<.001

인할 수 있었다.

## 2) 개인색채 유형에 따른 선호하는 패션색채 기호

개인색채 유형에 따라서 선호하는 의복의 색채를 조사한 결과, 〈표 8〉과 같이 봄 유형의 사람들은 겨울과 가을 색채군을 비롯하여 각 색채군에 대한 선호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고, 여름 유형은 겨울 색채군, 가을 유형은 가을 색채군, 겨울 유형은 겨울 색채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가을을 제외한 모든 유형에서 의복의 색채로 겨울 색채군을 선호하였고, 가을 유형만 같은 가을 색채군을 선호하여 개인색채 유형에 따라 선호하는 의복 색상에 통계적인 차이를 보였다. 봄과 여름 유형이 자신의 계절 색채군과 다른 색채를 선호하고 있었지만, 바탕색의 한난감 차원에서 특히 여름과 겨울의 개인 색채 유형과 패션색채 기호와의 연관성을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국여성들은 일반적인 선호색채와 달리 실제 선택하고 착용하는 의복색채는 대체로 한색 계열의 차분하고 어

둑고, 깊이 있는 색채를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겨울 색채군에 대한 선호는 Saito<sup>45)</sup>의 연구에서 한국 소비자들이 차가운 색조 또는 무채색의 의복색을 선호한다는 결과나, 박화순<sup>46)</sup>의 여대생들의 의상 선호색으로 한색의 짙거나 밝은 색채가 선호되었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 3)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패션색채

개인색채 유형에 따라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패션색채의 조사 결과, 겨울 색채군을 선호한 여름 유형을 제외하고는 모든 개인색채 유형에서 자신의 개인색채 유형과 같은 색채군을 선택하였다. 따라서 개인색채 유형과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채라고 생각하는 색채는 비슷한 양상을 보였고, 통계적으로 차이가 있었다(표 9). 반면 자신에게 어울리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는 색채군은 봄, 여름, 겨울 유형 모두 가을 색채군을 선택하였으며, 반면 가을 유형은 자신의 피부 바탕색과 다른 차가운 계열의 겨울 색채군을

〈표 8〉 개인색채 유형별 선호하는 의복색채군

개인색채유형	W-L-V(봄)	C-L-G(여름)	W-G-D(가을)	C-V-D(겨울)	전체	$\chi^2/p$
봄	12(20.7)	13(22.4)	16(27.6)	17(29.3)	58(100.0)	20.562* (.015)
여름	7(13.2)	11(20.8)	15(28.3)	20(37.7)	53(100.0)	
가을	1(8.3)	2(16.7)	7(58.3)	2(16.7)	12(100.0)	
겨울	1(4.8)	4(19.0)	1(4.8)	15(71.4)	21(100.0)	
전체	21(14.6)	30(20.8)	39(27.1)	54(37.5)	144(100.0)	

\*p<.05

〈표 9〉 개인색채 유형별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색채군

개인색채유형	W-L-V(봄)	C-L-G(여름)	W-G-D(가을)	C-V-D(겨울)	전체	$\chi^2/p$
봄	17(29.3)	12(20.7)	14(24.1)	15(25.9)	58(100.0)	24.545** (.004)
여름	14(26.4)	14(26.4)	9(17.0)	16(30.2)	53(100.0)	
가을	1(8.3)	2(16.7)	9(75.0)	0(0)	12(100.0)	
겨울	1(4.8)	6(28.6)	5(23.8)	9(42.9)	21(100.0)	
전체	33(22.9)	34(23.6)	37(25.7)	40(27.8)	144(100.0)	

\*\*p<.01

선택하였다. 홍미숙<sup>47)</sup>의 연구에서도 한국인의 부조화의 색은 5Y, 2.5P계열의 Dark Gray, Strong 톤이며, 명도가 낮은 색채에 부정적이라고 했다.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패션색채의 경우, 일반적인 색채기호나 실제 사용하는 패션제품의 색채기호에 비해 개인색채 유형과 같은 색채 특성의 색채군에 대해 뚜렷한 선호/혐오의 경향을 보였다.

또한 한국인들이 어울리지 않는다고 여기는 색채가 warm 계열의 어둡고 진하며 탁한 톤의 색채라는 것과 가장 분포가 낮은 개인색채 유형이 가을 유형이라는 점 또한 인간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친숙한 색채를 선호한다는 색채기호의 피부색설을 확인할 수 있는 결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 4) 개인색채 유형별 red의 선호

개인색채 유형별로 평소 선호하는 red를 조사한 결과, W(Warm)-2(10R5/14)와 C(Cool)-1(2.5R 4/14)의 red가 가장 많이 선택되었는데, 통계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나 따뜻한 개인색채 유형인 봄과 가을은 따뜻한 계열의 red를, 여름과 겨울의 차가운 색

채 유형들은 차가운 느낌의 red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가장 따뜻한 바탕색을 가진 W-2는 가장 낮은 선호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권영걸과 김내리<sup>48)</sup>의 연구에서와 같이 전통적으로 한국에서 선호되는 적색은 고채도의 R계열이며, Y계열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는 결과와도 관련을 보인다.

반면, 사용 중인 립스틱 색은 선호하는 red의 경우와 같이 W-1(7.5R4.5/14)의 선택이 우세하여 전반적으로 일반적으로 선호하는 red에 비해 실제 사용하는 red는 더 따뜻한 느낌의 색을 선호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색채의 유형간의 통계적인 차이를 크게 보이지 않았지만, 봄과 가을 유형들, 특히 가을 유형의 경우는 차가운 계열의 C-1의 선호가 극히 낮고 따뜻한 계열의 선호가 두드러졌다. 황상민 외<sup>49)</sup>의 연구에서 한국인이 선호하는 립스틱의 색상은 Y90R, R, R10B에 집중해 있다고 하였는데, 온도감으로 볼 때 따뜻한 느낌의 R과 YR계열을 선호하는 것이라 볼 수 있으며, 본 측정도구의 W-1, W-2와 비슷한 온도감을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개인색채 유형별로 선호되고 선택되고 있는 립스틱 색상에 대한 파

<표 10> 색채기호 문항간의 상관관계

n=144

	일반적 선호색	일반적 혐오색	선호 의복색	선호화장품색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색	안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색
일반적 선호색	1	-.461 (**)	.413 (**)	.250 (**)	.441 (**)	-.384 (**)
일반적 혐오색	-.461 (**)	1	-.390 (**)	-.226 (**)	-.391 (**)	.494 (**)
선호 의복색	.413 (**)	-.390 (**)	1	.067	.563 (**)	-.370 (**)
선호화장품색	.250 (**)	-.226 (**)	.067	1	.272 (**)	-.159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색	.441 (**)	-.391 (**)	.563 (**)	.272 (**)	1	-.373 (**)
안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색	-.384 (**)	.494 (**)	-.370 (**)	-.159	-.373 (**)	1

\*p<.05 \*\*p<.01

약은 국내 립스틱 제품의 색채개발을 위한 기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5) 피부화장(파운데이션) 색채의 선호 경향

개인색채 유형별 파운데이션 색채의 선호 경향을 조사한 결과, 모든 개인색채 유형에서 옐로 베이지 계열의 높은 선호도를 보였다. 가을 유형의 91.7%, 봄 유형의 82.8%, 겨울 유형의 81.0%, 여름 유형의 67.9%가 평소 옐로 베이지 계열의 파운데이션을 선호하고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존의 여러 선행연구들에서도 옐로 베이지에 가까운 내추럴 베이지 톤의 선호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우리나라 여성들은 피부색 표현에 있어 노란빛이 도는 옐로 베이지색을 선호하고 있었다. 개인색채 유형들을 비교해 보면 옐로우 바탕색을 가진 가을 유형은 블루 바탕색의 여름과 겨울 유형들보다 옐로 베이지 계열의 선호도가 크게 나타났고, 여름 유형의 경우만 핑크 베이지 계열의 선호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어느 정도 자신의 개인색채를 고려한 피부색 표현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조화로운 개인색채의 표현을 위해 개인의 언더 컬러와 메이크업 색채조화에 대한 세분화, 전문화된 이해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 3. 일반적인 색채기호와 패션색채 기호의 상관관계

색채기호 조사를 위한 문항간의 상관성을 살펴보면 <표 10>에서와 같이 일반적인 선호 색채와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색채 간에 상당한 일치율을 나타내었으며, 일반적인 혐오 색채와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색채와의 관계는 뚜렷한 차이를 보였다. 즉 warm 계열의 봄과 가을의 색채군을 혐오하는 사람들은 cool 계열의 여름과 겨울을 어울리는 색으로 선택하였고, 반대로 cool 계열을 혐오하는 사람들은 warm 계열을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으로 선택하여 한난감에 따른 색채기호의 차이가 뚜렷하였다. 또한 일반적인 선호색채와 사용하고 있는 의복은 일치도가 크게 나타났는데, 특히 상대적으로 낮은 분포를 보이는 가을과 겨울 색채군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일반적인 선호색채와 선호하는 의복색채가 일치하는 경향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Lind<sup>50)</sup>는 추상적인 색채선호도와 의복색의 선호도가 유사하다면 의복색으로 선택하여 착용하고 있는 색상들이 곧 그 개인의 특성을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선호색채와 자신에게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색채가 개인색채 유형에 어울리는 색채와 공통점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여성들의 패션색채 기호와 개인 색채 특성은 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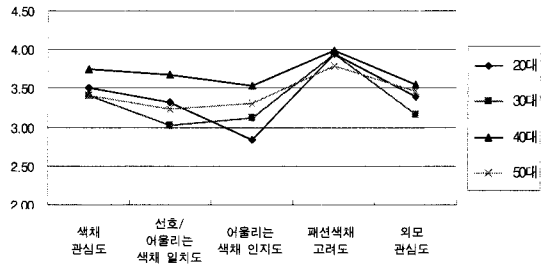
관성을 가진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 4. 인구통계적 특성 및 개인색채 유형 요인에 따른 패션색채 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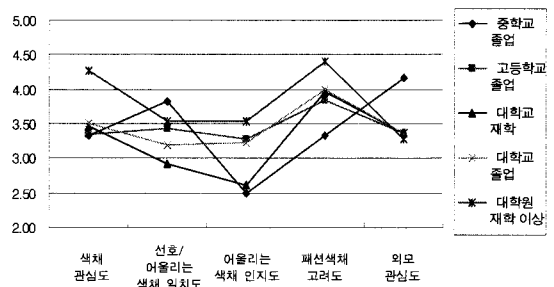
연령에 따른 색채인식의 정도를 분석한 결과, <그림 6>과 같이 선호색채와 어울리는 색채 일치도의 경우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0대가 가장 높았고, 30대가 가장 낮았다( $F=3.897, p=.010, p<.05$ ). 또한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상에 대한 인지도는 40대가 가장 높고, 20대가 가장 낮은 인지도를 보여 연령에 따라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채에 대한 인지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4.499, p=.005, p<.01$ ).

통계청 자료에 따른 연령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25-29세 여성이 66.1%, 30-34세는 50.2%, 35-39세는 59%, 40-44세는 65.6%로 나타나<sup>51)</sup> 40대 여성들의 활발한 사회 참여도를 반영하는데, 이러한 사회활동 증가나 여가시간의 증대, 경제적인 안정 등으로 자신에의 투자나 관리에 가장 적극적인 연령대로 부상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반면, 주요 출산 연령층이 20대에서 30대로 옮겨지면서 출산과 육아로 인해 사회활동 참여나 경제적 여유가 낮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다른 연령층에 비해 30대 여성들의 색채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이 낮게 나타나지 않았을까 생각된다. 이해영<sup>52)</sup>은 연령이 높을수록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의 인지도가 높았으며, 좋아하는 색과 어울리는 색이 일치하는지에 대한 조사에서는 20대와 40대에 비해 30대의 비중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를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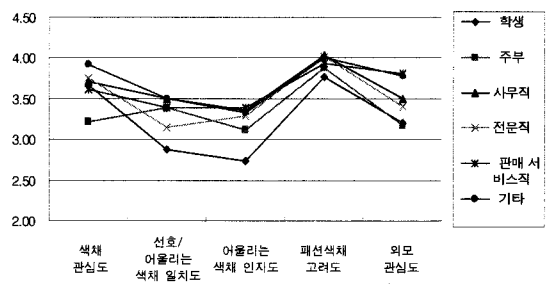
학력에 따른 색채인식의 조사 결과, 색채 관심도( $F=3.569, p=.008, p<.01$ ), 좋아하는 색과 어울리는 색에 대한 일치도( $F=3.348, p=.012, p<.05$ )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그림 7>. 특히 대학원 재학 이상의 경우 다른 학력집단에 비해 외모관심도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높은 색채인식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는데, 색채관심 이나 어울리는 색채에 대한 인지도가 높았으며, 패션상품에 있어서도 색채의 중요성을 크게 인식하고 자신의 이미지 관리에 적극 활용하고 있었다. 따라서 최근 사회전반에서 활발하게 활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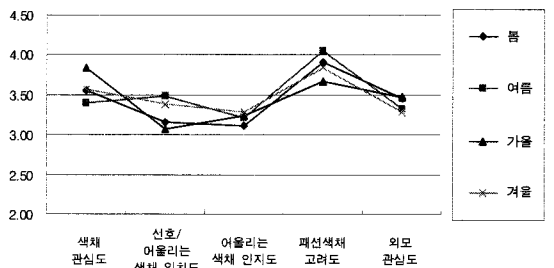
<그림 6> 연령에 따른 색채인식



<그림 7> 학력에 따른 색채인식



<그림 8> 직업에 따른 색채인식



<그림 9> 개인색채 유형에 따른 색채인식

하고 있는 고학력 전문직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패션 마케팅에 있어 색채마케팅의 중요성을 재확인하고 보

다 적절하고 효과적인 색채 활용전략이 요구되어진다.

또한 직업에 따른 색채 태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 색채관심도( $F=2.765, p=.021, p<.05$ ), 외모 관심도( $F=2.813, p=.019, p<.05$ )에서 통계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주부들의 인식 정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판매 서비스직을 비롯한 사회활동을 하고 있는 직업이 있는 여성들의 색채 인식도가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그림 8).

개인색채 유형에 따른 색채인식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뚜렷한 경향성을 나타내었다(그림 9). 즉 여름 유형이 자신의 신체색상을 가장 잘 인지 하고 있었으며, 이를 패션색채에도 적극적으로 고려하고 있었다. 또한 가장 낮은 분포를 보이는 가을 유형도 선호색과 개인색채 일치도, 패션색채 고려도가 가장 낮은 반면 색채 관심도와 외모관심도는 가장 높게 나타났다. 봄이나 겨울과 같은 비교적 강한 신체색 대비에 색채의 선택 폭이 넓은 유형들에 비해 신체색상의 대비가 적고 중간 채도의 흐린 톤이 어울리는 여름과 가을 유형들은 상대적으로 색채 선택의 폭이 좁아 평소 어울리는 색에 대한 인지나 패션색채의 선택에 더 민감한 것이라 볼 수 있겠다.

따라서 색채 코디네이션이나 개인색채 유형에 대한 이해의 확대를 통해 일반 소비자들에게는 보다 효율적인 이미지메이킹을 위한 지침이 되며, 패션관련 기업들은 품질 및 이미지 향상을 위한 제품개발과 함께 소비자의 구매의도를 자극하는 적절한 판촉방법으로 보다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고안해 내는데 힘써야 할 것이다.

## V.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색채기호의 피부색설을 토대로 개인색채와 패션색채 기호와의 관계를 밝혀 보기 위해 한국의 성인여성들을 대상으로 사계절 색채 이론을 바탕으로 개인색채를 진단하고 패션색채의 기호를 조사하였고 이에 따른 결론과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색채 유형 분류를 위해 한국여성들의 신체 색채를 진단하고 분류한 결과, 봄과 여름의 개인

색채 유형이 우세하게 나타났고 어울리는 색채이미지로는 Light 색채이미지의 분포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 여성들의 개인색채 유형의 특징은 바탕색에 있어 warm과 cool의 분포가 비슷하였으며, 대체로 밝고 부드러운 색채가 잘 어울리는 개인색채 유형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여러 개인색채 분류 시스템에서 전형적인 동양인의 개인색채 유형은신체색의 대비가 큰 봄과 겨울 유형이며, Vivid한 색채가 어울린다는 것과는 다른 결과를 보였지만 근래 발표되고 있는 국내의 여러 연구들과는 비슷한 양상을 보여 같은 황색인종의 동양인이라 할지라도 국가나 민족, 지역별로 발견되는 개인색채 유형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함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둘째, 개인색채 유형에 따른 패션색채 기호를 분석한 결과, 한국인의 개인색채 유형은 봄과 여름의 개인색채 유형으로 대표되며, 색채기호 경향에 있어서도 밝고 부드러운 색채 특성을 가진 여름과 봄의 색채군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나 지역적, 민족적인 독특한 색채감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개인색채 유형별로 선호하는 의복 색채와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색채에 있어서 통계적 차이가 나타났다. 즉, 봄 유형의 사람들은 편향된 색채 기호 경향을 보이지는 않았지만 겨울과 가을 색채군에 거부감을 보였다. 여름 유형은 화장품 선호 색채에서 같은 여름 색채군의 선호가 뚜렷하게 나타났고, 일반적인 선호 색채나 어울리는 색채에서도 여름 색채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을 유형은 개인색채 유형과 선호하는 패션색채가 가장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특히 의복의 선호색과 어울린다고 생각하는 색채군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한 겨울 유형은 개인색채 유형과 일반적인 선호 색채, 어울리는 색채가 일치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패션색채 기호에 있어서 모든 개인색채 유형들이 자신의 색채유형과 같은 색채특성을 가진 색채군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한난감의 차원에서 봄과 가을 유형의 Warm 바탕색 색채군에 대한 선호나 여름과 겨울 유형의 Cool 바탕색 색채군에 대한 높은 선호 경향과 개인색채 유형과 상반되는 색채군에 대한 혐오 경향

등은 개인색채 유형과 패션색채 기호와의 관계를 밝힘을 물론 개인색채 유형간의 색채기호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셋째, 인구통계적 특성 및 개인색채 유형에 따른 패션색채 인식 정도를 분석한 결과, 연령, 학력, 직업에 따라 색채인식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개인색채 유형에 의한 차이에서도 뚜렷한 경향성을 나타내어 색채에 대한 관심은 외모나 의복에 대한 소비자 행동에 커다란 영향으로 작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한국 여성들의 개인색채 유형과 패션색채 기호는 특정한 경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개인의 신체적인 색채 특성은 그 사람의 패션색채 기호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에게 어울리는 색을 좋아하고 친숙하게 여기며, 좋아하는 색에 있어서는 쉽게 싫증을 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색채는 과학기술의 발달에 의해 과거에 비해 훨씬 다양한 효과를 낼 수 있게 되었고 이전보다 전문화, 세분화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발달에도 불구하고 과거에서 현재까지 이어오는 각 문화권이나 국가에 따라 편향된 색채기호의 경향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다. 세계화와 지역화라는 패러다임 속에서 한 국가를 상징하는 색채를 추출하고 검증한다는 것은 국가의 색채를 자원화 하는 가장 기본적인 작업이 될 것이며, 국가별, 지역적인 색채기호의 바탕을 이루는 개인 소비자들의 색채기호 파악은 급변하는 다양한 시장 상황에서 보다 효과적인 패션색채기획의 기초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현재 실시되고 있는 많은 개인색채 진단은 진단체계나 도구, 진단의 근거가 통일되지 않은 제한점을 가지고 있지만, 하나의 설득력 있는 공통점을 가진다. 즉 개인색채 유형의 분류방법이나 분포 정도가 진단자에 따라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전반적인 개인의 신체색에 어울리는 바탕색과 개인색채의 대비 정도에 따라 적합도가 높은 색채에 관해서는 대부분 일관된 해석을 하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피험자가 대구, 경북권의 여성들이었고, 피험자 일인 당 30분 정도의 비교적 긴 조사 시간이 소요되며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진단자의 확보 등 실험의 양적인 면에서의 어려움

으로 인해 전체 한국인의 개인색채 유형과 색채기호로 일반화하기에는 한계가 따른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실험 대상의 광범위한 양적 확보와 함께 성별, 지역, 소득 등을 포함한 세분화된 피험자 집단을 비교 조사하거나 아이템이나 용도에 따른 패션제품의 색채기호를 조사하는 등 보다 정량적이고 세분화 된 연구가 계속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 1) Birren, F. 저, 김진한 역 (1996). *색채의 영향*. 서울: 시공사, pp. 87-95.
- 2) 松田博子 (1997). 色のみと好パーソナリティについて. *日本繊維製品消費科學會誌*, 38(2), p. 22.
- 3) IRI 디자인 연구소 (1998). *색채기호 유형 추출에 관한 연구*. 산업자원부, pp. 2-4.
- 4) Madden, T. J., Hewett, K., & Roth, M. S. (2000). Managing images in different cultures. *Journal of International Marketing*, 8(4), pp. 90-107.
- 5) Roberts, S. A. (2002). *Culture of colour*. Textile Horizons, JUL/AUG, pp. 18-19.
- 6) 김용훈 (1987). *MERCHANDISING을 위한 색채상품 개발론*. 서울: 청우, pp. 12-14.
- 7) 松田博子 (1997). *앞의 책*, p. 23.
- 8) 김용훈 (1987). *앞의 책*, pp. 48-56.
- 9) Saito, M. A. (1996). Cross-cultural study on preference for lightness of complexions. *Japanese Journal of Psychology*, 67(3), pp. 139-150.
- 10) 차정민, 노구찌가오르 (2002). 한국과 일본 대학생들의 색채선호비교연구. *한국색채학회논문집*, 20(1), pp. 1-10.
- 11) 최미영, 심영완, 신혜영 (2006). BRICs 지역 소비자 색채선호비교. *복식*, 56(5), pp. 118-131.
- 12) 김문영 (2006). 한국과 이태리 패션전문가의 색채기호 비교연구. *복식*, 56(2), pp. 112-124.
- 13) 이민아, 김구자 (2002). 한국 여성의 피부색 분류와 의상선호색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1), pp. 133-143.
- 14) 김구자 (2003). 한국성인 남성의 피부색 분류와 선호색에 관한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7(11), pp. 1338-1349.
- 15) 박정혜 (2002). *추위의복이미지와 의복태도에 따른 색조화장행동 연구*. 숙명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12-94.
- 16) 서란숙 (2005). *의복스타일과 화장 태도에 따른 색조 화장품 선호색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pp. 31-97.
- 17) Douglass, M. R. (1995). System for self-typing of individual essences. *United States Patent*, 5, 542,849.
- 18) Matsuura, S. (2004). 일본에서의 퍼스널 컬러 시스템의 추이. *한국의류산업학회지*, 6(5), pp. 535-538.

- 19) Goethe, J. W. 저, 장희창 역 (2003). *색채론*. 서울: 민음사, pp. 12-41.
- 20) Mathis, C. M., Connor, H. V. (1994). *The Triumph of Individual Style*. New York: Fairchild Publications, pp. 113-153.
- 21) Radeloff, D. J. (1991). Psychological types, color attributes, and color preferences of clothing textiles, and design students.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9(3), pp. 59-67.
- 22) 신향선 (2002). *퍼스널 컬러시스템에 따른 유형의 분포도와 색채진단 범인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6-80.
- 23) 윤희 (2004). *음악오행사상과 사계절 컬러론의 색채를 바탕으로 한 이미지 스타일링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47-88.
- 24) Fujii, D. 저, 염경숙 역 (1995). *Color with style*. 서울: 그래픽사, pp. 8-78.
- 25) Mathis, C. M., & Connor, H. V. (1994). *앞의 책*, pp. 113-153.
- 26) 김영인, 주미영, 이현주, 김희연 (2005). 개인의 색채 이미지 유형에 의한 국내색조화장품의 스토리 개발과 색채 계획. *복식*, 55(6), pp. 1-14.
- 27) 박화순 (2000). 개인색채 유형에 따라 어울리는 의복 색 경향. *복식*, 52(6), pp. 15-24.
- 28) 이민아 (2001). *한국여성의 피부색 분류와 선호색에 관한 연구*. 인하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9-21.
- 29) 문완목 (2005). *20대-30대 한국 여성의 베스트컬러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9-52.
- 30) 홍미숙 (2005). *한국인의 퍼스널컬러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1-80.
- 31) Kobayashi, S. (1991). *Color Image Scale*. New York: Kodansha, pp. 31-38.
- 32) 한명숙 (2002). 퍼스널 컬러에 대한 컬러 선택요인 및 만족도 연구. *한국의류산업학회지*, 4(4), pp. 369-375.
- 33) 이지운 (2003). *소비자의 라이프스타일에 따른 컬러선호도*. 덕성여자대학교 패션·텍스타일 비즈니스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25-46.
- 34) 이해영 (2004). *색조화장에 있어서 퍼스널 컬러 인지도와 유형별 색채 선호도 조사*. 중앙대학교 의약식품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36-89.
- 35) Jackson, C. (1980). *Color Me Beautiful*. New York: Ballantine Books, pp. 14-74.
- 36) Rabbitt, M. (2002). Your true colors. *Parenting*, 16(7), pp. 69-72.
- 37) 염경숙 역 (1995). *앞의 책*, pp. 8-78.
- 38) Matsuura, S. (2000). *퍼스널컬러 진단 강좌*. 대구: 한국의류산업학회, pp. 8-23.
- 39) 김유순 외 6명 (2004). *Color & Personal Color*. 서울: 예림출판, pp. 34-45.
- 40) Matsuura, S. (2000). *앞의 책*, pp.8-23.
- 41) 신향선 (2002). *앞의 책*, pp. 57-73.
- 42) 문완목 (2005). *앞의 책*, pp. 25-53.
- 43) 안취준 (2000). *한국회화의 이해*. 서울: 시공사, p. 61.
- 44) 배한나 (2004). *선호색분석을 통한 한국인의 색채감성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pp. 108-112.
- 45) Saito, M. A. (1996). *op. cit.*, pp. 139-150.
- 46) 박화순 (1995). 성격특성에 따른 색채의 속성별 의복 색 선호도. *복식*, 26, pp. 87-100.
- 47) 홍미숙 (2005). *앞의 책*, pp. 38-80.
- 48) 권영걸, 김내리 (2006). 한중일 산국에서의 적색의 의미와 상징에 관한 연구. *한국색채학회지*, 19(2), pp. 21-36.
- 49) 황상민, 김경인, 송경석, 권금주 (1999). *립스틱 제품에서 나타난 한국인의 선호 색상범위와 그 특성*. 한국색채학회동계학술대회, pp. 60-66.
- 50) Lind, C. (1994). Psychology of color. *Clothing & Textiles Research Journal*, 12(1), pp. 57-65.
- 51) 페이오피 (2006. 12. 1). *고학력기혼여성, 재취 업하고 싶어도 바늘구멍*. 뉴스와이어. 자료검색일 2007.3.15, 자료출처 <http://www.newswire.co.kr>
- 52) 이해영 (2004). *앞의 책*, pp. 45-82.